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황수연

부산경남도지회장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극복해 가리라 믿으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정해년도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양계인들 평안과 행복이 가내에 함께 하시고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 기원합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 양계업계는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과잉생산과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하여 불황이 지속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진 한해였습니다. 또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비롯한 KBS 환경스페셜 '산란기계 닭', 닭고기 항생제 검출 등의 각종 악재성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양계산물의 소비감소까지 이어져 시름이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계인들은 전통적으로 강한 결속력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여러 난관들을 잘

첫째, AI 차단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근래에 들어 겨울철이면 HPAI 발생으로 우리 양계산업은 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HPAI 발병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AI 유입원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는 철새가 국내로 유입되는 시기이며, 계사의 환기조건 악화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생요소들이 상재해 있는 만큼 농장에서는 이에 대비한 차단방역 중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03/'04년에 이어 지난 '06/'07년에도 국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으며, 우리 양계산업은 그로 인하여 산업전체에 흔들리는 위험을 겪기도 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겨울철 차단방역에 충실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도 11월부터 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I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 사육농가 5,000호를 중심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및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여부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양계농가들도 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을 위해서 농장주변의 그물망을 설치하여 철새와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아야 하며, 농장 주변의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외부인이나 농장출입 차량을 제한하는 등 차단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실천사항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조금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거출하여 소비홍보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우리 양계산업은 빠른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제는 생산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파이를 넓혀 나가는 소비홍보사업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산란계 자조금의 경우 임의자조금 형태로 지회와 지부를 중심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부화장과 사료업계 등 관련업계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2억7천여만원의 자조금이 납부되었으며 정부지원금까지 총 올해 6억여원 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년보다 많은 소비홍보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축종의 사례처럼 대대적인 소비홍보사업을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양계인들이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해 주어야만 자조금의 파급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산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군농장들이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양계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참여가 속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보다 성공적인 산란계 자조금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육계의무자조금의 경우는 지난달에 있었던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위원 구성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조금 활성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자조금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제는 협회를 중심으로 양계인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길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은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발과 사양기법을 개발하고, 공동방역 및 HACCP 강화로 안전양계산물을 생산하며, 아울러 우량종계 입식을 통한 병아리 생산능력 향상, 밀사 억제 및 환기 개선을 통한 생산효율 향상 등 수많은 현안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양계산업도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현안들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양계인들의 의견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리는 하나의 울림에 그치지 않지만 전국에 있는 양계인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체계화된다면 큰 파급효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양계인대회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 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기에 다시 한 번 우리 양계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양계**